

새천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배 동 호
한국낙농학회장



새천년을 맞이하는 낙농가의 경영지표로써 다음 3요소를 권장한다.

- 첫째, 더 많이(More)
- 둘째, 더 오래(Longer)
- 셋째, 더 짧게(Shorter)



한 국 낙농산업은 짧은 역사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엄청난 질적 양적 성장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숫적으로 따져보아도 타 산업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 이러한 낙농 산업의 발전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정부의 낙농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의 결과라 볼 수 있겠다.

그러다 근간 우리나라가 WTO(국제무역기구)에 가입되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한국낙농산업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 어려움과 함께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낙농분야의 새천년을 맞이하는 소감은 화려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로 보고, 앞으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한국 낙농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란 국제 경쟁력이 낮은데 있다. 낙농경영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곧 낙농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며, 이것이 바로 새 천년 한국 낙농산업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우리의 낙농경영 여건이 선진 낙농국가(미국, 구라과 등)에 비해 열악하다는

조건들을 들먹이며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등 부정적인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과 네델란드의 낙농여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들 나라들이 선진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낙농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과거의 좋았던 제도와 안이한 관념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새 돌파구를 찾고 20세기에 이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룩되어야 하며, 낙농 분야 종사자들은 가장 훌륭한 국민 보건식품을 생산하는 자랑스런 국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

UR(우르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낙농시장 개방을 앞 둔 시점에서 많은 낙농 지도자(자칭)들은 너무도 많은 곳에서 글로써, 말로써 낙농산업의 장래를 위해 혁신적인 낙농정책과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입을 주장했다. 무엇이 혁신적이며 무엇이 첨단기술 인지를 필자는 알 수 없었다.

낙농산업은 젖소라는 생명체를 사육해서 젖을 생산하는 산업이

다. 젖소에게 사료 주고, 똥 치고, 젖을 짜며, 유질 향상에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미국이나 구라파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며, 1900년대와 2,000년대가 다를 바가 없다. 누가 질이 좋고 값싼 젖을 생산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질이 좋고 값싼 젖을 생산하기 위해선 능력이 좋은 젖소를 선택해서,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료를 급여하고, 비유생리에 따라 젖을 짜고, 적기에 번식하며 안락한 우사에서 거처토록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토록 하는 것이 낙농기술이며, 낙농생산성 향상이며, 국제 경쟁력 향상의 길이다.

1940년대 설파제, 항생제 등이 연속 개발되면서, 당시 낙농가들은 이제 젖소 유방염 걱정은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새천년을 맞는 오늘 미국 등 선진 낙농국에서도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소독과 청결을 강조한다.

20세기 자연과학 분야의 큰 업적 중 하나는 생명공학 또는 유전공학 분야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된 송아지가 탄생되고, 유전자 조작된 종자가 보급되고 있지만, 이것이 낙농산업 현장에 이용될 때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응용도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젖

소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기술과 착유 기술을 바탕으로 일부 접목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이들 기술을 뛰어 넘을 수는 없으며 더욱이 현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낙농가의 경영지표로써 다음 3요소를 권장한다.

첫째, 더 많이(More)

둘째, 더 오래(Longer)

셋째, 더 짧게(Shorter)

두당 더 많은 젖을 생산해야 한다. 연간 우군(牛群)의 평균 두당 젖 생산량이 8,000kg 이상은 되어야 한다. 젖소가 성우가 되는 나이는 만 6세이다. 이때 일생 중 젖 생산량이 최고조에 이른다. 과거 우리는 착유우가 성우가 되기 전에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적어도 착유연한을 10살 이상 되도록 연장해야 한다. 낙농경영에서 두당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특히 착유 소요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두수를 최대한 많게 해서 노동 집약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96년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시유를 제외한 유제품의 수입은 급증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낙농은 시유 생산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시유의 소비 확대와 원유의 수급 균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새천년 한국 낙농이 살아

남기 위한 전략임을 강조한다.

원유 검사는 공영화되어야 하며, 검사 항목은 더욱 보강되어 원유의 질이 어느 나라보다 한 등급 앞선 것으로 인식되어져 신도불이 우유가 국민보건 식품으로써 우위를 차지했을 때 21세기 한국 낙농은 웃음꽃을 피게 된다. 젖의 생산은 계획 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수급조절 및 가격조정이 이루어져 안정된 낙농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낙농가에 주어진 생산 할당제(quota)가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농가의 권익은 낙농가 스스로가 찾아야 하고 낙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모든 낙농가는 단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낙농자조금제도는 정착되어야 한다. 새천년에는 친 환경농업이 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농업이 환경공해의 원인 제공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욕있는 후계자 확보 및 헬퍼제도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농의 큰 단점중의 하나가 365일 중단없는 작업의 연속으로 년중 구속성이라는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 또는 협업화 등이 추진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필자연락처 : 02-763-5232〉